

주요 내용

1. [슬기로운 목회 생활 : 2023 목회 인식]

‘가족은 나의 힘’, 목회자 가정생활 만족도,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아!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2022년 사망원인 통계

2)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OECD국 비교)



‘가족은 나의 힘’, 목회자 가정생활 만족도,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아!

영어로 ‘목사’를 의미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다. ‘Minister’는 직업으로서의 목사를 표현하는 단어이며, ‘Pastor’는 초원이나 목초지의 관리자에서 유래하여 목사 즉 목양자의 의미이다. 목사에 대한 공식 호칭이자 존칭인 ‘Reverend’는 ‘존경’과 ‘거룩’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목회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살펴보면 거룩함보다는 치열한 일상이다.

이번에 조사된 목회자들의 월 평균 소득은 302만 원으로 한국 중위소득의 56% 수준이었는데 적은 사례비를 충당하기 위해 소형교회(50명 미만) 목회자 3명 중 1명은 이중직을, 배우자 절반 이상은 별도의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가 되고 싶은 비율은 떨어지고 있고, 자녀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목회자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아 목회 지탱의 힘이 가정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넘버즈 211호>에서는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한목협) 특집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고민과 어려움, 목회에 대한 인식과 일상생활 등을 살펴본다. 목회자의 삶을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목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데 도움되길 바란다.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넘버즈 발행 목차

- ①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의식
- ② 비개신교인이 바라보는 한국교회
- ③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 생활
- ④ 목회자의 목회 실태
- ⑤ **목회자의 목회 인식**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한국교회(개신교) 담임 목사
조사 지역	전국(Nationwide)
표본 규모	802명(유효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모바일) 조사(목회데이터연구소 및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DB를 활용, 목회자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설문 링크를 발송하여 진행함)
표본 추출 방법	전국 교회의 교회규모별 비례 할당추출 (Proportionate Quota Sampling)
조사 기간	2023년 01월 31일 ~ 02월 12일 (13일간)
조사 의뢰 기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연구/분석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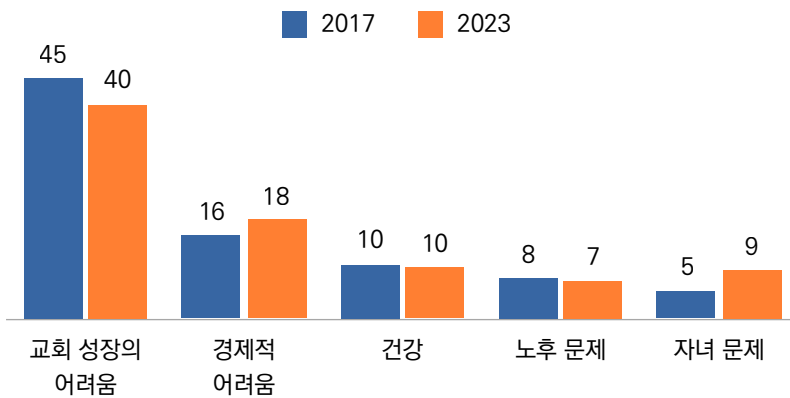
01

[목회 인식]

목회자의 가장 큰 고민, '교회 성장 어려움'!

- ▶ 목회자들에게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교회 성장의 어려움'이 다른 일상적인 문제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 '건강' 등의 순이었다. 2017년 조사 결과와 순위상 큰 변동은 없었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문제'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 ▶ 목회자의 가장 큰 고민으로 '교회 성장 어려움'이 압도적인 1위로 응답된 것은 현재 한국교회 하락추세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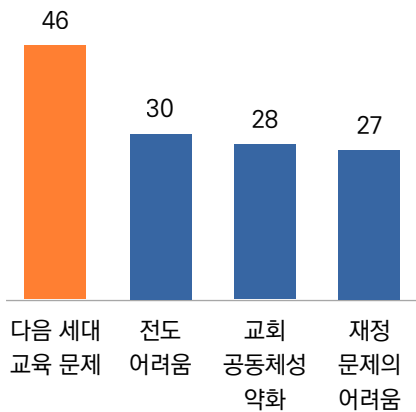
[그림] 요즘 가장 큰 고민 (담임목사, 상위 5위, %)



◎ '다음 세대 교육 문제' 가장 어렵다!

- ▶ 목회 환경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묻은 결과, '다음 세대 교육 문제'(46%)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전도 어려움' 30%, '교회 공동체성 약화' 28%, '재정 문제의 어려움' 2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 50명 이상 교회는 '다음 세대 교육 문제'를 1위, 다음으로 '교회 공동체성 약화'(2위)를 응답한 반면 49명 이하 소형교회의 경우 '재정 문제의 어려움'을 목회 환경의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꼽아 교회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그림] 목회 환경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담임목사, 1+2순위,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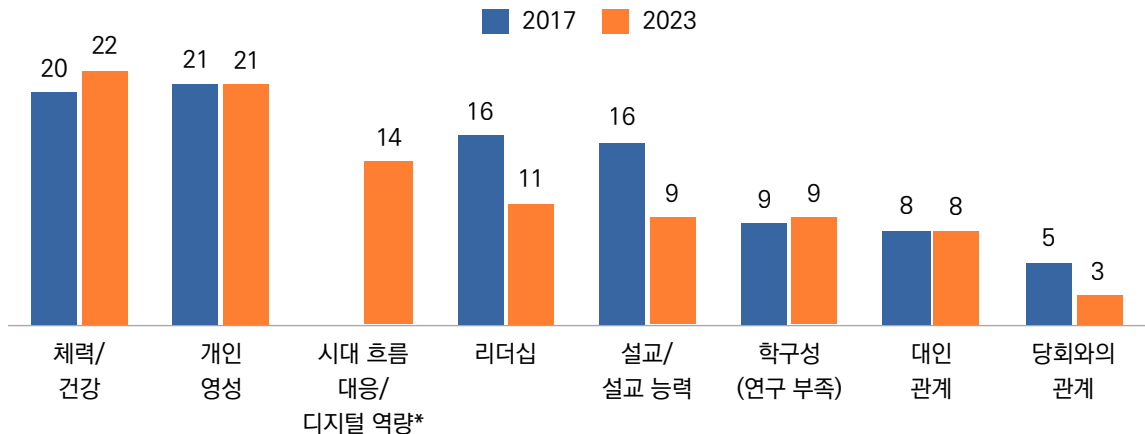
[표] 교회 규모별 목회 환경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담임목사, 1+2위, 상위 3위)

교회 규모	1위	2위	3위
49명 이하	재정 문제의 어려움(41%)	전도 어려움 (37%)	다음 세대 교육 문제(35%)
50~99명	다음 세대 교육 문제(62%)	교회 공동체성 약화(26%)	전도 어려움 (23%)
100~499명	다음 세대 교육 문제(53%)	교회 공동체성 약화(37%)	전도 어려움 (22%)
500명 이상	다음 세대 교육 문제(51%)	교회 공동체성 약화(46%)	전도 어려움 (32%)

◎ 리더십/설교 능력보다, '시대 흐름 대응/디지털 역량'이 더 부족하다고 느껴!

- ▶ 목회 환경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크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체력'(22%)과 '개인 영성'(21%)이 가장 높게 응답된 가운데 2023년 조사에서 새로 추가된 '시대 흐름 대응/디지털 역량'이 14%로 3순위였고, 그다음으로 '리더십', '설교', '학구성' 등의 순이었다.
- ▶ 목회자들은 '리더십'과 '설교', '관계적(대인/당회)' 측면보다 '시대 흐름 대응/디지털 역량' 측면에서 더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림] 목회 환경에서 느끼는 자신의 가장 큰 부족함 (담임목사, 상위 8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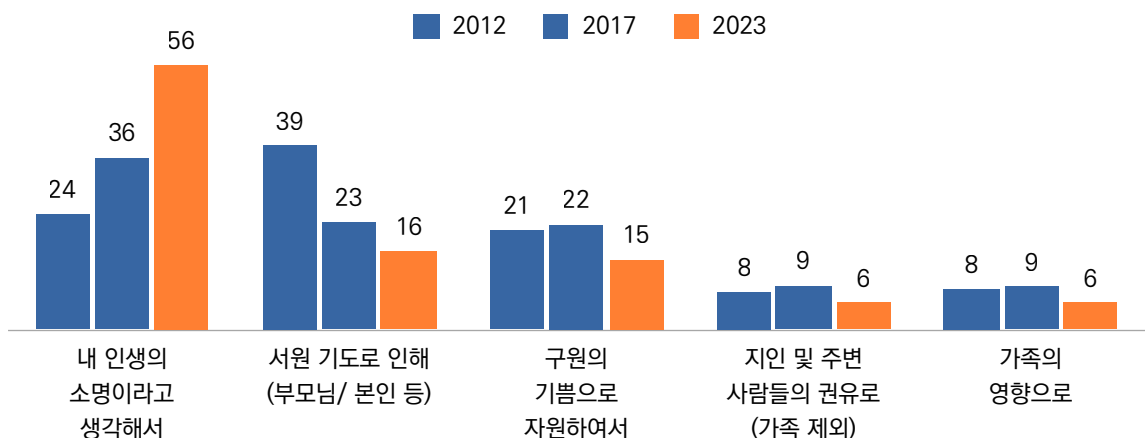


*2023년 조사부터 신규 항목 추가

◎ 목회 시작 이유, '서원 기도' 줄고, '소명 인식' 증가!

- ▶ 목회자들에게 목회 시작 계기를 묻은 결과, '내 인생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서'가 5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원 기도로 인해' 16%, '구원의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15%, '지인 및 주변의 권유로' 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원 기도로 인해' 목회를 시작했다는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개인의 소명'이기에 목회를 시작한다는 응답률은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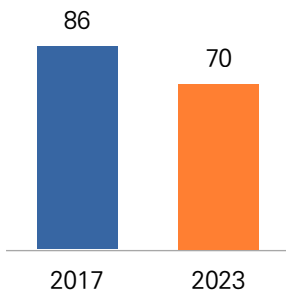
[그림] 목회 시작 계기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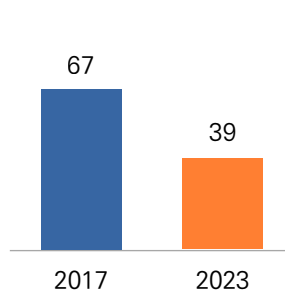
◎ 목회자 10명 중 6명, ‘자녀가 목회자 되는 것 원치 않는다!’

- ▶ 목회자의 소명감과 현재 목회 만족도를 예상할 수 있는 질문으로써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가 되고 싶은지’를 물었다. 그 결과, 목회자 10명 중 7명 정도가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응답했다. 2017년 조사와 비교 시 ‘다시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응답률은 16%p나 낮아져 현 목회 현실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목회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응답한 목회자가 70%나 되는 것은 한국교회에 희망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 한편 자녀가 목사가 되길 원하는지를 물은 결과, 39%만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17년 조사에서 67%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만큼 어려움을 보여주는 데이터라 할 수 있다.

[그림]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가 되고 싶다”
(담임목사, ‘그렇다’ 응답 비율, %)



[그림] “나의 자녀가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담임목사, ‘그렇다’ 응답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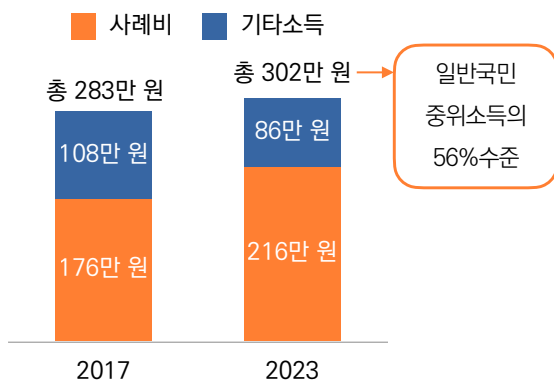
02

[소득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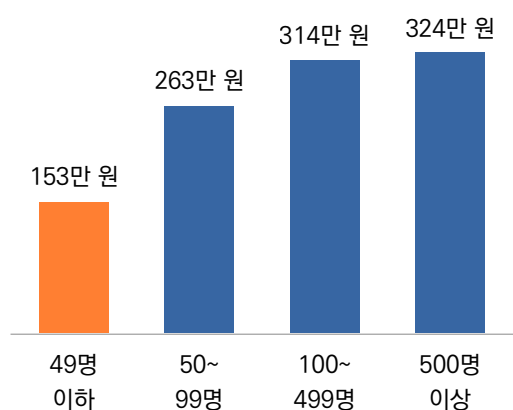
49명 이하 소형교회 목회자, 최저임금보다 낮은 사례비 받고 있어!

- ▶ 목회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는 월평균 216만 원으로 2017년 176만 원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사례비 외 기타소득은 평균 86만 원으로 2017년 108만 원보다 대비 22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월 사례비와 기타소득을 합한 총소득은 2023년 302만 원으로 2017년 283만 원보다 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회자 총소득 302만 원은 2023년 한국의 4인 가구 기준의 중위소득*인 540만 원의 56%수준이다.
- ▶ 교회 규모별 사례비 수준을 살펴보면 49명 이하 소형교회 담임목사는 평균 153만 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사례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49명 이하 소형교회임을 감안하면 목회자(담임목사)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이하의 저소득층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월평균 소득 (담임목사)



[그림] 교회 규모별 월평균 사례비 (담임목사)



*중위소득 :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

**최저임금 : 2023년 기준 약 201만 원(주 40시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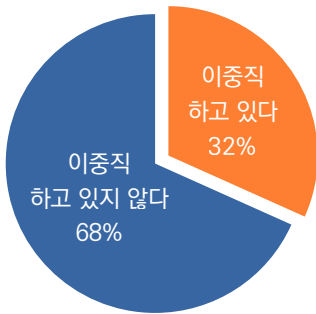
03

[이중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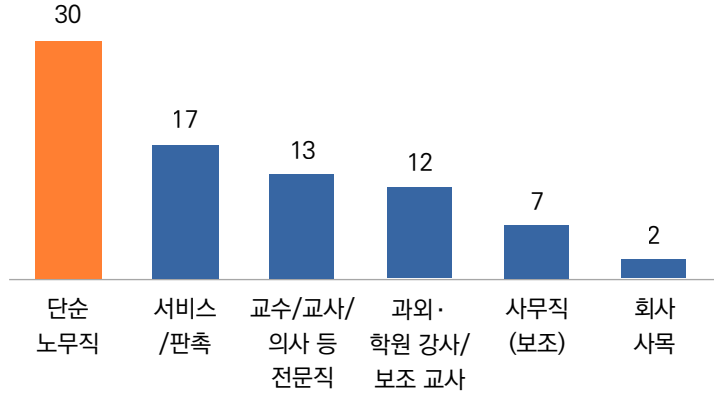
소형교회 담임목사 3명 중 1명, 이중직 하고 있어!

- ▶ 소형교회(49명 이하) 목회자의 이중직 현황은 어떠할까? 목회 이외 이중직을 하는 소형교회 담임목사는 32%로 3명 중 1명 수준이었다.
- ▶ 하고 있는 이중직으로는 '단순 노무직'이 30%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판촉' 17%, '교수/교사/의사 등 전문직' 13% 등의 순이었다.

[그림] 이중직 여부 (49명 이하 교회 목회자)



[그림] 하고 있는 이중직 종류 (이중직 하고 있는 49명 이하 교회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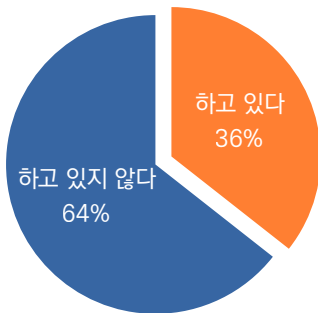


◎ 소형교회 담임목사 배우자 54%, 경제 활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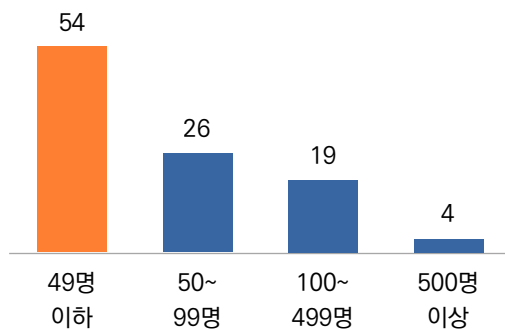
- ▶ 이번에는 목회자의 배우자, 즉 사모의 경제 활동 여부를 묻은 결과, 전체적으로 목회자 사모 3명 중 1명 이상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 사모의 경제 활동 비율은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는데, 특히 49명 이하 소형교회의 경우 목회자 배우자의 절반 이상이 목회 이외 다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그림] 배우자의 경제 활동 여부 (기혼 담임목사,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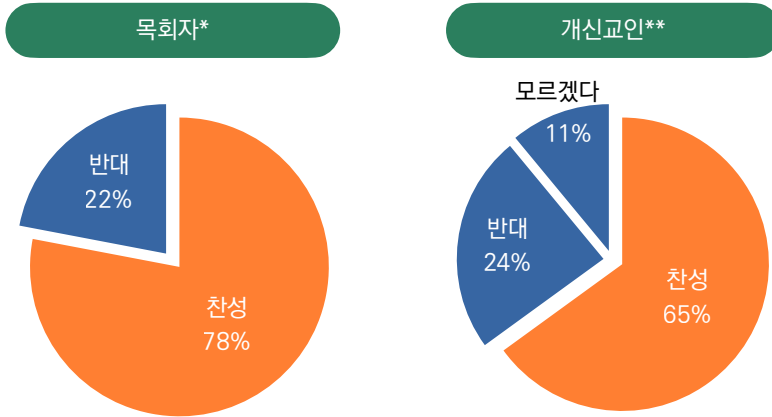
교회 규모별



◎ 이중직 찬성률, 목회자가 성도보다 높아!

- ▶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목회자와 개신교인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작년 데이터(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2022)가 있어 함께 살펴본다.
- ▶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 찬성하는지 여부를 목회자와 개신교인에게 각각 물었다. 그 결과, 목회자 78%, 성도 65%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목회자의 이중직 찬성률이 성도보다 더 높았다. 목회자가 성도보다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 관대한 것은 목회자가 처한 현실을 목회자 그룹이 더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찬반 (%)



*자료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2022.05.25.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소속 담임목사 981명, 모바일 조사, 2022.04.27~04.30.)

**자료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2022.05.25. (전국 19세 이상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 조사, 2022.04.15~04.25.)

***목회자 조사는 '찬성', '반대', 개신교인 조사는 '찬성', '반대', '모르겠음'을 보기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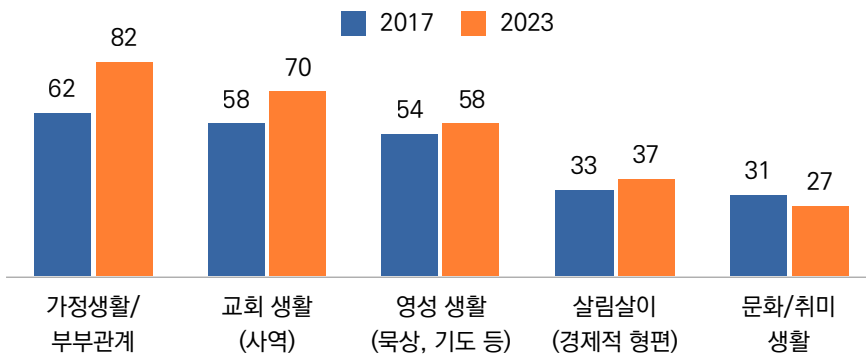
04

[일상생활/가정]

담임목사의 일상생활 만족도, 전반적으로 증가

- ▶ 목회자들에게 일상생활의 5가지 항목을 제시한 후 각 항목별 만족도를 물었다. 그 결과, '가정생활/부부관계' 만족도가 82%로 가장 높았고, 그 외 '교회 생활' 70%, '영성 생활' 5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살림살이'나 '문화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절반을 한참 밑도는 20~30%대 수준에 불과했다.
- ▶ 일상생활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면 2017년 조사 대비 증가했으며, '가정생활/부부관계' 만족도 증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일상생활 만족도 (담임목사, '매우+약간' 만족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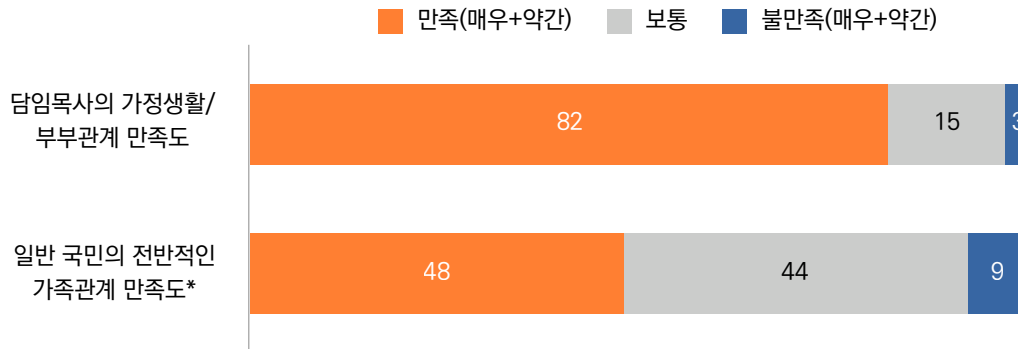


*5점 척도임

◎ ‘가족은 나의 힘’, 목회자 가정생활 만족도,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아

- ▶ 목회자(담임목사)의 가족 관련 만족도를 일반 국민과 비교해 보았다. 목회자의 가족 관련 만족도가 일반 국민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만족하는 비율이 무려 1.7배가량 더 높았다. 사역으로, 경제적으로 지친 목회 현실에서 가정과 부부관계가 큰 힘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그림] 가족 관련 만족도 : 목회자 vs 일반 국민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가족관계 만족도 조사, 2023.08.15.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06.23.~0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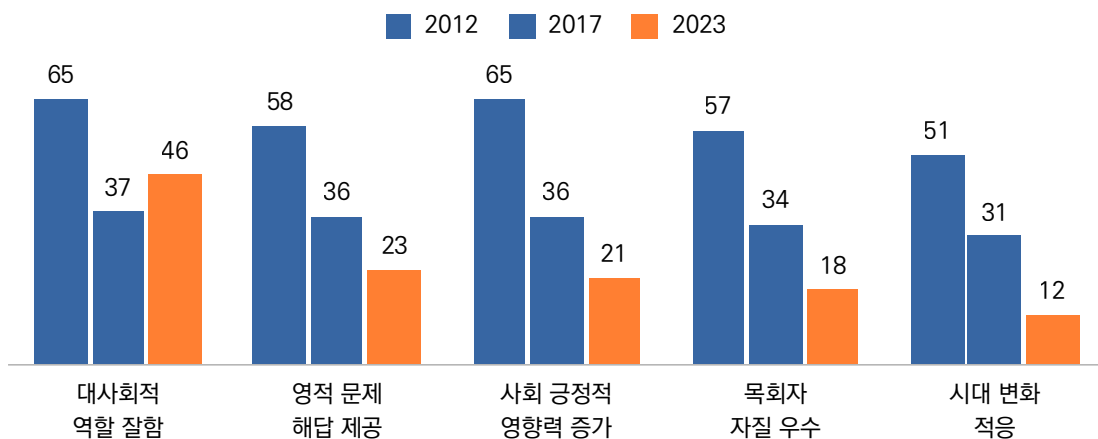
05

[한국교회 평가 및 기타]

목회자 스스로의 한국교회 평가, 10년 사이 크게 낮아져!

- ▶ 목회자들에게 한국교회의 주요 요소 항목을 제시하고 평가하도록 한 결과 ‘대사회적 역할 잘함’은 2012년 대비 긍정 평가율이 크게 감소했다가 2023년 다소 증가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활발해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활동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하지만 ‘영적 문제 해답 제공’, ‘사회 긍정적 영향력 증가’, ‘목회자 자질 우수’, ‘시대 변화 적응’ 등 다른 항목은 긍정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으며 2012년 평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림] 한국교회 평가 (담임목사,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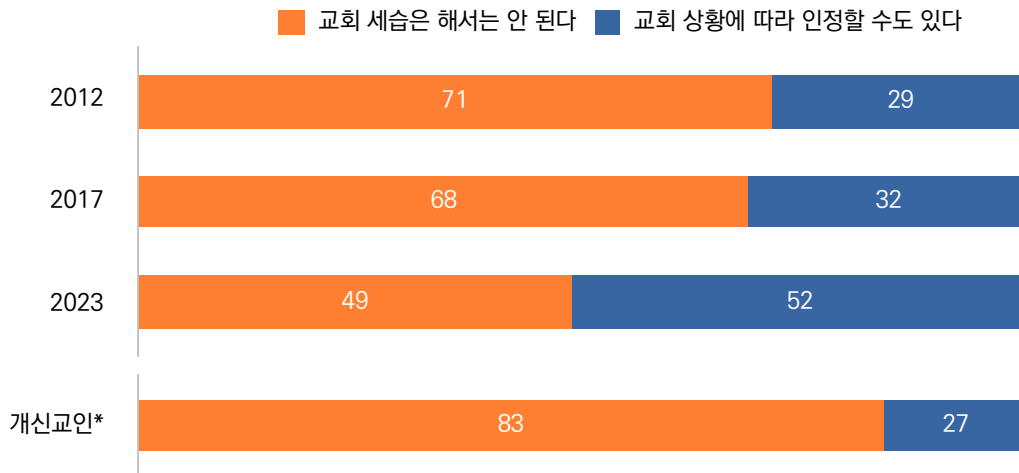


*5점 척도임

◎ 교회 세습에 대한 긍정 인식, 2012년 29% → 2023년 52%로 급증!

- ▶ 교회 세습에 대한 목회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교회 상황에 따라 인정할 수도 있다' 52%, '해서는 안 된다' 49%로 엇비슷하게 응답했다. 2012년 조사에서는 교회 세습은 '해서는 안 된다'(71%)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10여 년 사이 '교회 상황에 따라 인정할 수도 있다'가 더 높아지는 역전된 결과가 나타났다. 2012년 29%에서 2023년 52%로 무려 23%p나 급증했다.
- ▶ 반면 성도들의 경우 '교회 세습 반대' 의견이 10명 중 8명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목회자와 큰 인식 차이를 보였다.

[그림] 교회 세습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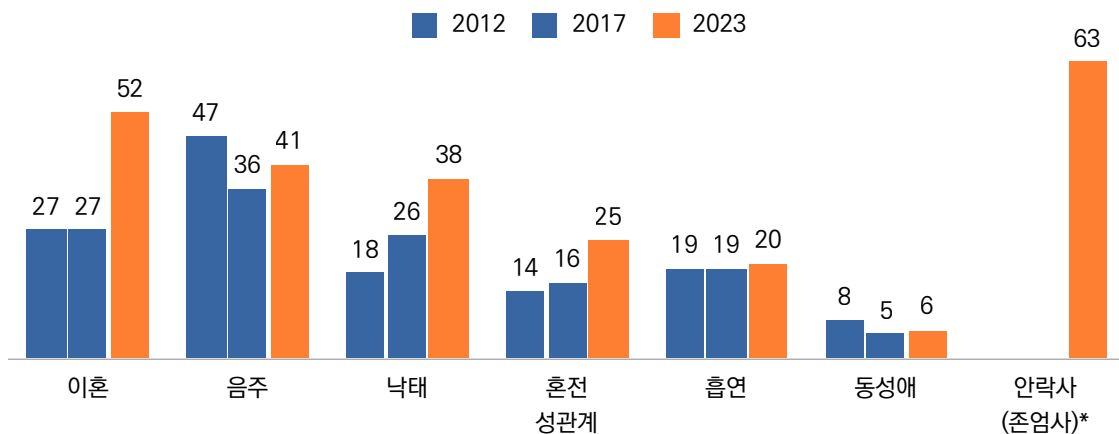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서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 목회자 2명 중 1명, '이혼,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

- ▶ 목회자들은 현대사회 다양한 윤리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이혼, 음주, 낙태 등 민감한 윤리 문제 항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수용률(상황에 따라 가능+해도 무방)을 확인한 결과, '안락사'가 6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혼' 52%, '음주' 41%, '인공유산(낙태)' 3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 이혼, 낙태, 혼전 성관계 등과 관련된 목회자의 입장은 2017년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2023년 비교적 큰 상승폭을 보였다. 목회자들의 윤리 의식이 보다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현대사회 윤리 문제 인식 (담임목사, '상황에 따라 가능+해도 무방' 비율, %)



*2023년 조사에 새롭게 추가

지난 200호 특집으로 실시한 구독자 설문조사에서 파악한 구독자의 직분은 82%가 목회자였다. 이번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서 2회에 걸쳐 목회자 특집 파트를 다룬 가장 큰 목적은 넘버즈의 주 구독자층인 목회자에게 한국교회 목회 환경을 알려줌으로써 본인의 목회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더 나은 목회 방향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제에 ‘슬기로운 목회 생활’을 붙였다.

하지만 목회 환경을 살펴보면 슬기로운 목회 생활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척박하고 고달픈 것이 현실이다.

첫 번째 힘든 현실은 ‘워라벨 없는 삶’이다.

목회자가 그나마 유일하게 휴식과 정비를 할 수 있는 월요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역 관련 활동을 하는 비율이 낮지 않았다. 중복 응답 기준 26%는 ‘설교 준비’를, 23%는 ‘교회 사역’을 한다고 응답했다. (목회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닌)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회 성장의 어려움’(40%)과 ‘경제적 어려움’(18%)을 꼽았는데, 특히 소형교회의 경우 교회 성장의 어려움이 곧 경제적 어려움의 주요한 원인임을 감안한다면 사역의 고민이 곧 일상의 고민임을 알 수 있다. 일반 사업가의 경우 모든 시간과 생각에서 ‘일과 삶’을 분리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삶의 모든 영역이 곧 ‘사역’인 셈이다.

두 번째 힘든 현실은 ‘경제적 여유 없는 삶’이다.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담임목사의 월평균 사례비는 216만 원이며, 기타소득을 포함한 총 소득은 302만 원이다. 2023년 4인 가구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이 540만 원이니, 사례비만으로 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고 총 소득으로 해도 56% 수준이다. 소형교회의 사례비를 보면 더 심각한데, 교인 수 49명 이하 교회의 담임목사 사례비 평균은 153만 원으로 주 40시간 일한 최저시급만 못하다. 2021년 기준 예장통합교단 기준으로 교인 수 49명 이하 교회 비율이 54%이니 절반이 넘는 교회의 사례비가 아르바이트 보다 못한 수준이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소형교회 담임목사 32%는 이중

직을 하고 있었고, 배우자 54%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자녀의 목회자 희망 계승 비율이 2017년 조사 대비(67%) 크게 떨어진 39%라는 결과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번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의 또 다른 조사 결과로 비개신교인이 생각하는 ‘목회자들의 우선 해결 과제’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물질적 욕심’(32%)이었다. 일부 교회의 ‘돈’과 관련한 부정적 행태로 인해 전체 목회자가 받는 편견은 경제적으로 힘든 현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목회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첫째는 ‘소명 의식’이다. ‘목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10년 전 조사(2012년)에서 가장 높게 나왔던 ‘서원 기도로 인해’는 39%에서 16%로 크게 낮아졌고, ‘내 인생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서’는 24%에서 56%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사역의 어려움을 부르심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로 잘 이해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목회자 네트워킹으로 소명 의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바로 ‘가족의 힘’이다. 이번 결과에서 목회자가 ‘가족/배우자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이 무려 82%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국민의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48%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로해 주고 지원해 주는 가족이 목회를 지탱하는 데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사역을 위해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종교도 있지만 개신교는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근원적으로 체험하고 신앙의 기본을 배우는 거룩한 곳이라 여긴다.

부르심의 사명이, 그리고 건강한 가정으로부터 오는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목회자에게 필요한 때이다.

1.[2022년 사망원인 통계]

2.[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OECD국 비교)]



2022년 사망원인, 알츠하이머(치매) 1년 사이 46% 증가!

- ▶ 매년 9월 발표되는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인분류 지침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한 주요인을 기준으로 집계되는데, 2022년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으로 암, 심장 질환, 코로나19가 차례로 1~3위를 기록했고, 이 세 개의 사망원인이 전체 사망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 지난 10년간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2022년 기준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63명으로 나타났고, 자살 사망률은 25명으로 작년보다 한 단계 떨어졌다.(6위) 한편 알츠하이머병(치매)으로 인한 사망률은 2021년 16명에서 2022년 23명으로 전년보다 46%나 크게 증가한 것이 주목된다.

[표] 사망원인 순위 (인구 10만 명당 명)

순위	2020년		2021년		2022년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률
1	암	160	암	161	암	163
2	심장 질환	63	심장 질환	62	심장 질환	66
3	폐렴	43	폐렴	44	코로나19	61
4	뇌혈관 질환	43	뇌혈관 질환	44	폐렴	52
5	자살	26	자살	26	뇌혈관 질환	50
6	당뇨병	17	당뇨병	18	자살	25
7	알츠하이머병	15	알츠하이머병	16	알츠하이머병	23
8	간 질환	14	간 질환	14	당뇨병	22
9	고혈압성 질환	12	패혈증	13	고혈압성 질환	15
10	패혈증	12	고혈압성 질환	12	간 질환	15

*자료 출처 : 통계청,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23.09.21.

◎ 10~30대 가장 큰 사망원인은 '자살'!

- ▶ 앞에서 살펴본대로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지만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10~30대까지는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고 40~50대도 2위를 차지했다.
- ▶ 10대 사망자 10명 중 4명, 20대 사망자 절반이 '자살'일 정도로 젊은 층의 자살 비중이 높는데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결과이다.

[표] 연령별 사망원인 중 '자살' 순위 및 비중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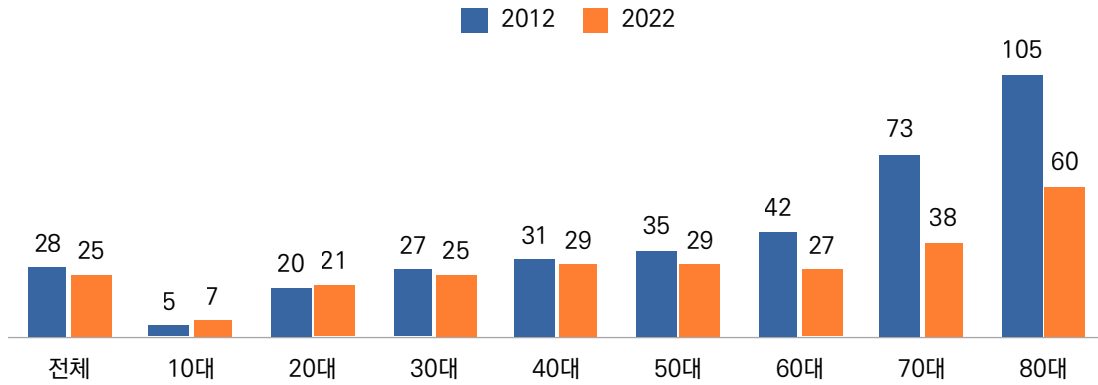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위	자살(42%)	자살(51%)	자살(38%)	암(26%)	암(33%)	암(38%)
2위	암(12%)	암(9%)	암(17%)	자살(20%)	자살(9%)	
3위						
4위						
5위						자살(4%)

*자료 출처 : 통계청,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23.09.21.

◎ 전체적으로 자살률 감소 추세인데, 10~20대층만 증가

- ▶ 자살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2012년 28명에서 2022년 25명으로 감소하였고, 10~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자살 사망률은 감소세를 보였다. 자살자의 수만 보면 80대가 인구 10만 명당 60명으로 가장 높지만 자살 증가율로 보면 10대의 자살 증가율이 40%로 가장 높았다.

[그림] 연령별 자살률 추이 (인구 10만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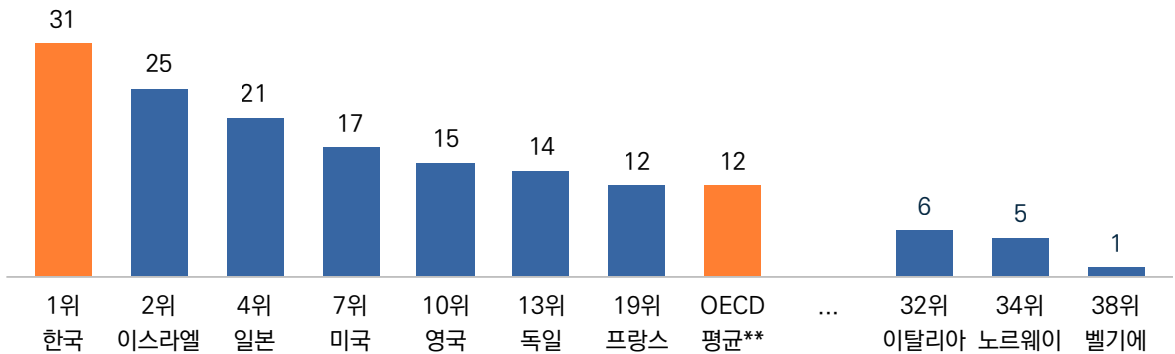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23.09.21.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 ▶ 최근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격차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데 기여해 온 미국 경제학자 클로디아 데일 골딘(Claudia Dale Goldin)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실제 어떠한지를 OECD국과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 ▶ 한국의 남녀 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로 OECD 평균인 12%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은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26년째 유지 중이다. 임금 격차가 31%라는 것은 남성 근로자가 100만 원을 버는 동안 여성 근로자는 69만 원을 버는 데 그쳤음을 의미한다.

[그림] 남녀 간 임금 격차 (OECD국 비교, 2022년 또는 가장 최신 조사일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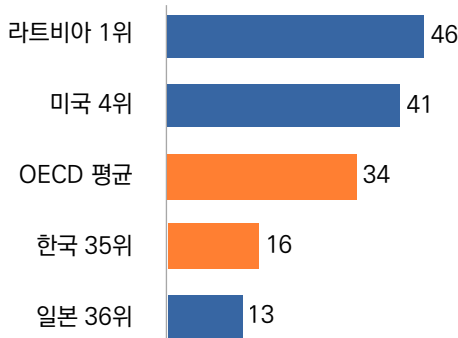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OECD, gender wage gap 데이터 참조, 2023.10. (<https://data.oecd.org/earnwage/gender-wage-gap.htm>)

**OECD 평균은 2021년 기준임(각 나라별 조사 기준일이 상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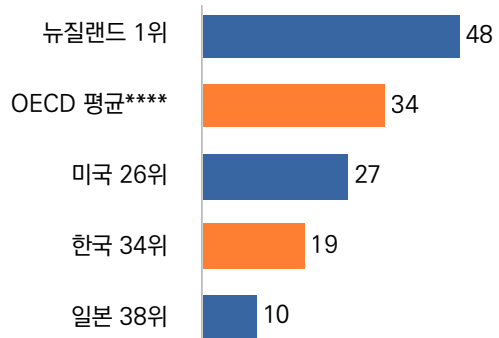
◎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중, OECD 36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

- ▶ 한국 여성의 사회진출 현황, 사회적 지위 정도를 파악하고자 여성 관리자 비중***과 여성 국회의원 비중을 각각 OECD국과 비교해 보았다. 우리나라 여성 관리자 비중은 2021년 기준 16%로 조사에 응한 OECD 36개국 가운데 35위로 조사됐다. 일본(36위)을 빼면 최하위인 셈이다.
- ▶ 여성 국회의원 비중 역시 OECD 평균이 34%인데 반해 한국은 19%로 절반 정도 수준에 그쳤고, OECD 38개국 중 한국보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낮은 나라는 2021년 기준으로 콜롬비아, 튀르키예, 헝가리, 일본 등 4개국에 불과했다.

[그림] OECD국 여성 관리자 비중* (2021년 기준, 36개국, %)



[그림] OECD국 여성 국회의원 비중** (2021년 기준, 38개국, %)



*자료 출처 : 연합뉴스, 한국 여성 관리자 비중 16.3%...OECD서 일본 빼면 최하위, 2023.03.08.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7157900003>)

**자료 출처 : OECD, gender wage gap 데이터 참조, 2023.10. (<https://data.oecd.org/earnwage/gender-wage-gap.htm>)

***여성 관리자 비중은 기업 임원,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대학 총장, 초중고교 교장 등 관리직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임

****OECD 평균은 2023년 기준임(각 나라별 조사 기준일이 상이함)

◎ 각 교단별 여성 총대(총회회원) 비율, 6개 교단 평균 12%

- ▶ 한국교회의 여성 참여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여성 총회 총대(총회회원) 비율’을 각 교단별로 살펴보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의 경우 2019년 2%, 2023년 3%로 여전히 한 자리 수에 그쳤고,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는 2019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10%대를 유지했다. 여성 총대 비율이 가장 높은 교단은 ‘대한성공회’로 총회회원(성공회에서는 의회 대의원으로 불림) 4명 중 1명(26%)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 ▶ 6개 교단 평균은 2019년 11%, 2023년 1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한국교회 주요 교단 여성 총대 비율

교단	2019*	2023**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2%	3%
한국기독교장로회	10%	11%
기독교대한감리회	11%	15%
대한성공회	18%	26%
기독교대한복음교회	15%	11%
기독교한국루터회	7%	7%
6개 교단 평균***	11%	12%

*자료 출처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자료 출처 : 각 교단별 직접 전화 통화하여 확인함

***각 교단의 총대, 여성총대 수가 동일하다는 전제로 낸 평균임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60호 \(2023년 10월 2주\)](#)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기대,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 등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107호 \(2023년 10월 2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 방향성 평가, 정당지지도, 여야 갈등 수준 등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당에 투표?...국민의힘 32.6%, 민주당 31.3%](#)

연합뉴스_2023.10.11.

◎ 사회 일반

[국민 28% 정신질환 경험하는데...예산은 WHO 권장치 절반도 안돼](#)

연합뉴스_2023.10.12.

[의대정원 확대 '파격 규모' 예상...확대폭 '1천명' 훌쩍 넘을수도](#)

연합뉴스_2023.10.14.

[국민 56% “의대정원 300~1000명 늘려야”](#)

조선일보_2023.10.11.

[‘1억 수퍼카’ 모는 2040, 5년새 4배로... 증가율 가장 높은 지역은](#)

조선일보_2023.10.12.

[‘만 나이 통일’했지만 국민 3명 중 2명은 안 써... 한국 나이 왜 끈질긴가](#)

조선일보_2023.10.14.

[60세 이상 부부 10쌍 중 3쌍은 맞벌이... “생활비 벌어야죠”](#)

중앙일보_2023.10.17.

◎ 청소년 / 청년

[Z세대 2명 중 1명 “행복한 척해야 한다는 압박 느낀다”](#)

중앙일보_2023.10.10.

["MZ, 부모보다 빨리 늙는다"...당뇨·고혈압 증가 5060 압도 \[MZ 가속 노화\]](#)

중앙일보_2023.10.17.

[수도권 출신 대졸 청년, 지방 출신보다 결혼가능성 낮다](#)

매일경제_2023.10.15.

[가짜뉴스에 더 잘속는 1020세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급](#)

매일경제_2023.10.16.

◎ 기업 / 경제

[취업자 증가 30만명대 회복했지만...청년·제조업 고용 '불안'](#)

중앙일보_2023.10.13.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허리띠 졸라매도...IMF “한국 국가부채 비율 5년 뒤 58%”](#)

중앙일보_2023.10.16.

[“퇴직 희망 연령은 60세... 실제 퇴직은 53세 예상”](#)

동아일보_2023.10.16.

[업무량 줄었다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선 넘은 ‘을의 갑질’](#)

중앙일보_2023.10.11.

[이자 못내는 좀비기업 3900곳, 자영업자 연체도 7조 ‘역대 최대’](#)

조선일보_2023.10.13.

◎ 국제

[‘한국에 호감’ 일본인 11년來 최고로 늘어...한국인 반응은 악화 \(한일 국민 상호 인식조사\)](#)

연합뉴스_2023.10.12.

[“가장 행복해요” 건설 근로자... “제일 불행해요” 의료 근로자](#)

조선일보_2023.10.14.

[중국보다 10살 젊다...인도, 10년뒤 세계 경제 넘버2 넘보는 이유](#)

조선일보_2023.10.15.

◎ 건강

[“치매 위험 57%까지 줄어든다”...美 의사협회가 추천한 운동](#)

중앙일보_2023.10.14.

[국내 사망 원인 2위 ‘이 질환’... “일교차 커질땐 더 조심”](#)

동아일보_2023.10.14.

[좋은 생활 습관만으론 오래 못 산다...진짜 장수 비결은?](#)

동아일보_2023.10.14.

[“귀찮아서”...10명 중 1명만 화장실 쓰고 손 제대로 씻는다](#)

동아일보_2023.10.13.

◎ 기독교 / 종교

[올해도... 여성, 총회 높은 문턱 넘지 못했다](#)

더미션(국민일보)_2023.10.12.

[예장합동, 위기에서 반등 이뤘다](#)

기독신문_2023.09.22.

[코로나 거치며 출가자·신학생 반토막...종교절벽 시대 오나](#)

매일경제_2023.10.11.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기획기사 : 난임 부부의 눈물, (중앙일보)

- [1. 출생아 10명 중 1명 난임 출산인데, 국가 지원 헛바퀴](#) _2023.10.14.
- [2. 322조 쏟고도 출산율 추락, 낳고 싶은 부부 지원 확 늘려야](#) _2023.10.14.
- [3. 산모 셋 중 한 명은 35세 이상, 난산에 비용·시간 '삼중고'](#) _2023.10.14.
- [4. 임신 성공률 높여 부담 줄이는 게 최선책](#) _2023.10.14.
- [5. "시간·비용 세계일주 맞먹어, 한 번에 임신 간절히 기도"...시술 위해 휴직·퇴사도](#) _2023.10.14.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학교,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할렐루야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CC 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책 구입 안내 |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기반하여 한국 교회 전망과 전략을 담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4'가 출간되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신학교 교수, 언론인, 현직 대형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 기독교 문화 전문가, 조사 통계 전문가 등 한국교회를 다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로 TFT를 구성, 기획하고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조사와 집필을 주관하여 작년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에 이은 두 번째 책입니다.



서적 소개 동영상

책 구입 안내

| 월드비전 감사챌린지 |

감사한달은 감사노트와 함께 매일 감사묵상&매일 감사찾기&매일 감사표현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날마다 새롭게 고백하는 신앙회복 챌린지입니다.

신청기간 : 9월 15일 ~ 10월 25일

참가대상 : 감사하고 싶은 누구나

참가비 : 무료

TGC노트 신청하기

감사한달 안내

